



남해 독일마을 기념품 인증상품

Deutsches Dorf Produkte Zertifizierung Souvenir





「2024 남해독일마을 기념품 인증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인 남해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해독일마을을 대표하는 우수 관광기념품을
발굴하고 기념품 인증을 통해 독일마을 브랜드 가치
제고 및 홍보, 선정 업체의 인증기념품 유통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식품

네코나매 크레프트비어

남해의 로컬맥주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지역의 특산물을 사용하여 지역의 색이 느껴지는 맥주를 만들며 남해의 아름다운 공간 마을과 잘 어우러지는 맥주를 만들며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 인증연도 : 2024
기업명 : 네코나매 크레프트비어
대표자 : 고서연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48-1
✉ nekonamae@naver.com
📷 @nekonamae_craftbeer
🔔 판매가 : 9,000



페스타비어

독일맥주축제인 옥토버페스트 기간에 마시는 페스타비어는 일반 라거 맥주보다 좀 더 보리몰트의 맛이 구수하게 나며 진한 것이 특징입니다. 남해독일마을 맥주축제에 오지 못하더라도 페스타비어를 마신다면 언제든지 그 축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유자바이젠 비어

남녀 상관없이 부드러운 맥주를 즐기는 분들이 좋아하는 밀맥주에 남해의 자량인 유자를 통째로 넣어 만든 유자바이젠입니다. 유자의 향이 너무 강하지 않고 은은하게 퍼지며 부드러운 밀맥주를 마신 뒤 유자의 산뜻함이 피니쉬에 올라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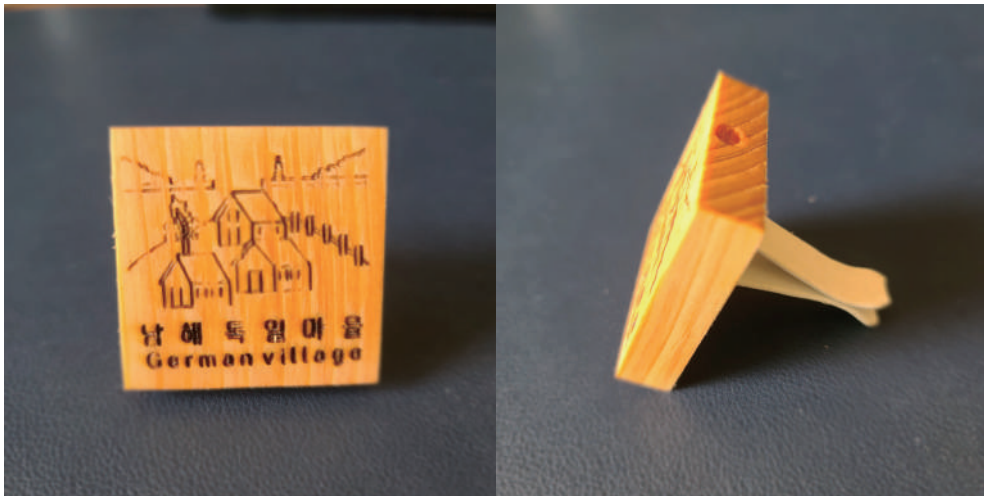
공예품

내산공방

내산공방은 남해에서 생산되는 편백나무를 사용하여
편백 오르골, 편백 방향제 등을 제작하는 공방입니다

📅 인증연도 : 2024
기업명 : 내산공방
대표자 : 엄동섭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금암로 562-9
✉ friend2862@naver.com
🔔 판매가 : 19,000 원



독일마을 차량용 편백나무 방향제 (독일마을, 소시지, 맥주)

독일마을에서 근거리에 위치한 내산마을(남해편백휴양림 소재)에서 생산된 편백나무로만 제작된 차량용 방향제입니다. 독일마을 여행을 항상 추억할 수 있도록 일러스트로 독일마을을 각인하였습니다. 플라스틱이나 고무가 아닌 친환경 제품으로 영원히 사용할 수 있고, 차안 송풍구에 부착하여 차 내부에 건강에 좋은 은은한 편백향이 항상 가득 할 것입니다.



공산품

번동보호작업장

번동보호작업장(TOW#)은 1991년 10월 16일 설립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30년 넘게 발달장애인들에게 일자리와 자립의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현재 35명의 발달장애인이 함께 일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물 생산시설로 인증받아, 우수한 품질의 수건 인쇄제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남해 독일마을 공식 기념품 제작을 통해, 장애인분들이 정성껏 만든 특별한 제품을 많은 분께 선보이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 인증연도 : 2024

기업명 : 번동보호작업장

대표자 : 이승호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15길 20, 501동 번동보호작업장

✉ bd8337@hanmail.net

🏠 <http://www.bondong21.or.kr>

🛒 판매가 : 22,000 원



독일병정 호두까기 인형 자수 수건(2p)

이 수건은 독일의 전통 호두까기 인형을 정교한 자수로 표현하여, 남해 독일마을의 특별한 매력을 담아냈습니다. 고급스러운 코마사 40수 면으로 제작되어 부드러우면서도 흡수력이 뛰어난 수건입니다. 일상 속에서도 남해 독일마을의 추억을 자주 떠올릴 수 있는 실용적이면서도 특별한 기념품입니다.

특징 :

- 독일의 상징적인 호두까기 인형 디자인
- 고급스러운 자수 기술로 표현된 정교한 디테일
- 부드럽고 흡수력이 뛰어난 100% 코마사 면
- 독일마을의 상장을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실용적인 기념품
- 중증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인증 가능

수건 소재 : 코마사 40수

수건 1장 크기 : 가로 400 x 세로 800(mm)

수건 색상 : 브라운, 딥그린

수건 1장무게 : 170g (물을 충분히 머금을 수 있는 고중량)

변동보호작업장

변동보호작업장(TOW#)은 1991년 10월 16일 설립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30년 넘게 발달장애인들에게 일자리와 자립의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현재 35명의 발달장애인이 함께 일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인증받아, 우수한 품질의 수건 인쇄제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남해 독일마을 공식 기념품 제작을 통해, 장애인분들이 정성껏 만든 특별한 제품을 많은 분께 선보이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 인증연도 : 2024
기업명 : 변동보호작업장
대표자 : 이승호

📍 서울특별시강북구한천로 115길 20, 501동 변동보호작업장
✉ bd8337@hanmail.net
🏠 <http://www.bondong21.or.kr>
🔔 판매가 : 23,000 원



파독 근로자 자수 고리수건 선물패키지(3p)

파독 근로자를 기념하는 3가지 자수 고리 수건을 구성한 선물 패키지입니다. 남해 독일마을의 역사를 기리는 이 세트는 실용성과 상징성을 모두 갖춘 제품입니다. 고급스러운 패키지에 담겨 있어 특별한 날을 위한 선물로 적합합니다.

특징 :

- 파독 근로자를 상징하는 자수 디자인 (파독광부, 파독간호사, 파독전시관)
- 선물용 고급 패키지 포함
- 뛰어난 흡수력과 내구성의 100% 코마사 소재
- 독일과 한국 간의 역사적 인연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선물
- 중증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인증 가능

수건 소재 : 코마사 40수

수건 1장 크기 : 가로 340 X 세로 340 (mm)

수건 색상 : 브라운(파독전시관), 연그레이(파독간호사), 진그레이(파독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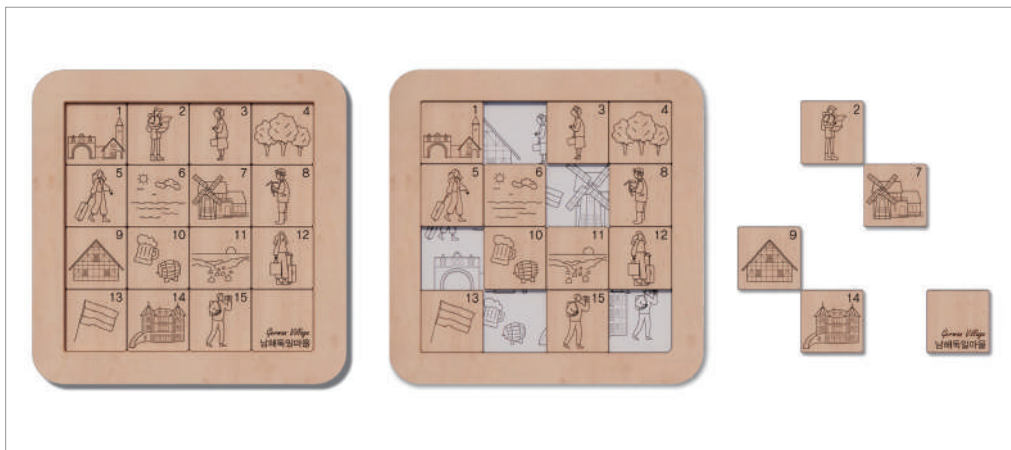
수건 1장 무게 : 70g (핸드타올 용)

99 Works

건축 기반으로 공간기획 및, 로컬을 주제로 한 굿즈를 제작하는 스타트업입니다.

📅 인증연도 : 2024
기업명 : 99 Works
대표자 : 김태혁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75번길 55, 303호
(하단동, 금색빌)
✉ 99works@naver.com
🔔 판매가 : 19,000 원



남해 독일마을 숫자퍼즐

남해 독일마을 숫자퍼즐은 남해 독일마을 콘텐츠와 슬라이딩 퍼즐을 접목한 제품입니다.

독일 스타일의 건축물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와 산이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
마을을 조성한 파독 광부와 간호사, 관광객들이 함께 활기를 띤 모습,
그리고 독일마을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일러스트로 표현하여 퍼즐로 제작하였습니다.
퍼즐을 담는 프레임은 액자로 사용할 수 있어 그림카드를 다양한 사진들로 바꿀 수 있습니다.

독일마을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숫자퍼즐과 함께 일상에서 여행의 기억을 남기길 바랍니다.

트리퍼

Find your trip. 트리퍼는 일상 속 국내 여행의 가치를 재발견 합니다.

MZ세대를 타겟으로 온라인에서는 국내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트리퍼라운지 매장을 중심으로 지역의 관광 굿즈 및 투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인증연도 : 2024

기업명 : 트리퍼

대표자 : 이진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876번길 15 1층
트리퍼라운지 (trippers.me)

✉ sungjin6398@daum.net

🔔 판매가 : 30,000 원(티셔츠) / 12,000 원(에코백)



LOCAL PLACE GERMAN VILLAGE

(에코백, 티셔츠)

관광지를 모티브로한 제품은 식상하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남해 대표 관광지인 독일마을을 트리퍼가 새롭게 디자인하여 만들어낸 티셔츠와 파우치입니다.

관광지를 기념하기에도 좋고, 일상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두 제품 모두 최근 MZ세대들이 선호하는 사이즈 및 트렌드를 반영해 제작했습니다.



남해관광 문화재단

남해독일마을 바이젠글라스500ml (3종)

독일계 밀맥주는 주로 바이젠글라스를 사용한다.

밀맥주의 색이 잘 보이도록 글라스의 두께가 얇고, 기다란 높이와 글라스 윗부분에 두껍고 폭신한 거품층이 생기는 공간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밀맥주 향을 맥주잔 안에 가두기 위해 고안된 형태이다. 대체로 바이젠글라스는 500ml를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남해독일마을 바이젠글라스에 맥주를 담아 독일의 풍미를 즐겨 보길 추천한다.



판매가 : 12,000 원

남해독일마을 마스잔 1,000ml (1종)

마스(Mass)잔은 옥토버페스트를 비롯한 독일 맥주 축제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잔이다. 'Mass'는 '아주 많은', '대량의'라는 의미처럼 한 잔에만 무려 1L의 맥주를 담을 수 있다. 잔의 무게 2kg, 맥주 1리터의 1kg, 손에 들린 총 3kg의 무게는 뜨거운 축제 열기 속에서 단숨에 속은 시원하게, 손은 가볍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또한 마스잔은 두툼한 유리소재에 손잡이가 달려있어 손의 온기를 전달하지 않아 시원한 맥주의 온도를 잘 유지하여 무더운 축제 분위기 속 필수품이다.

추수의 계절, 남해에서 열리는 옥토버페스트 속에서 가장 좋아하는 맥주를 마스잔에 가득 채운 뒤, 하늘을 향해 높이 잔을 들어 주위 사람들과 시원하게 축배의 잔을 부딪혀보자!

“Prost(건배)!” “Zum wohl(위하여)!”



판매가 : 20,000 원

남해독일마을 너도밤나무 오프너

너도밤나무는 독일 전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수종으로
특히 슈바르츠발트 너도밤나무숲은 울창하기로 유명하다. 음지에서도 잘 견디고 잘
자라는 너도밤나무의 특성은 파독 근로자의 강인함을 상징한다. 유명 맥주 브랜드에는
그 맛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전용 잔이 있듯 오프너의 "퐁"소리와 함께
남해 독일마을의 감성을 더해보자.



판매가 : 9,000 원

남해독일마을 텀블러백 (S,M)

남해독일마을 키링과 참으로 개성을 연출할 수 있는 텀블러백이다. 독일마을에서 판매하는 에딩거, 파울라너, 바이헨슈테파너, 슈무커 등 예쁜 독일 맥주를 담아 남해독일마을에서의 기억을 소중한 사람에게 전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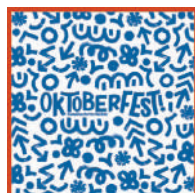
S 판매가 : 8,500 원



M 판매가 : 12,000 원

남해독일마을 맥주축제 손수건 (2종, 주황 파랑)

남해독일마을 주택의 붉은 색감이 담긴 손수건이다. 헤어밴드, 스카프, 머리 끈, 가방 액세서리 등으로 개성 있는 연출이 가능하다. 손수건 속 다양한 패턴들처럼 모두가 어우러져 흥겨움과 열기 가득한 독일마을 맥주축제를 즐겨보자.



판매가 : 6,000 원

남해독일마을 맥주축제 기념 참 (2종)

매년 10월 초, 남해에서는 세계 3대 축제인 독일 뮌헨 옥토버페스트(Oktoberfest)를 모태로 한 맥주축제가 열린다. 남해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이국적인 독일마을을 배경으로 2010년 10월 16일 파독 근로자 주도로 시작된 남해독일마을 맥주축제를 기념하는 참(Charm)이다.

독일입국기념 스탬프 키링

1963년 12월 21일 어려웠던 조국을 위해 123명의 파독 근로자들이 처음으로 낯선 독일 땅을 밟았음을 기념하는 키링이다. 비행기에 몸을 실은 채 낯선 곳으로 떠나는 그들의 용기와 도전 정신이 담담히 담겨있다.



맥주축제 기념 참(2종) 판매가 : 5,500 원



독일입국기념 스탬프 키링 판매가 : 6,000 원

글뤽&수레국화 참

지하 1,200m 탄광으로 들어가는 광부들의 행운을 비는 인사말
"Glück Auf(살아서 돌아오라)"와 독일 국화이자 "행복"의 의미를 담고 있는 수레국화와
함께 '행운'과 '행복'을 기원하는 참(Charm)이다.

독일 전통 주택 참

남해 독일마을은 독일에서 직접 들여온 건축자재로 독일 전통 양식으로 지은 집들이다.
유럽의 많은 토양은 붉은색을 띠는 라테라이트(laterite)를 함유하고 있어 1,200℃
고열에서 굽게 되면 붉은색을 띠게 된다. 이러한 붉은색 지붕은 독일마을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되었다.



글뤽&수레국화 참 판매가 : 5,500 원



독일 전통 주택 참 판매가 : 5,500 원

파독 간호사 테마 기념품

파독 간호사를 테마로 제작한 기념품 5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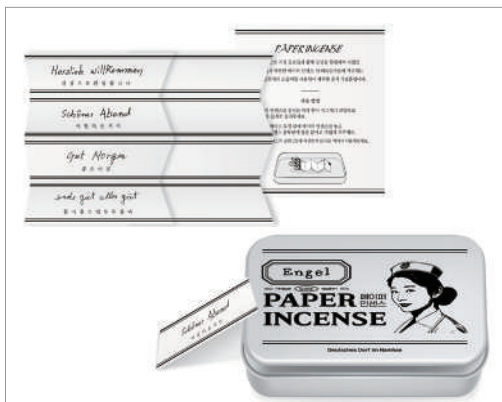
파독 당시 '한국에서 온 천사'라는 의미의 엠블럼 'Engel'과 간호사 일러스트를 활용하여 디자인하였다. 의료품인 밴드, 간호사가 사용했던 찻잔과 일기장, 한국을 그리워하며 태우던 양초에서 착안하여 메탈코스터, 노트, 페이퍼 인센스 그리고 스테디셀러인 마그네틱의 기념품이다. 일부 기념품의 문구는 독일마을에 거주하는 파독 근로자의 손글씨, 추천 문구를 활용했다



밴드 패키지 판매가: 5,000 원 ~ 6,000원



소형노트 판매가: 3,500 원



페이퍼 인센스 판매가: 20,000 원



마그네틱 판매가: 13,500 원

메탈 코스터 판매가: 6,000 원

파독 광부 테마 기념품

파독 광부를 테마로 제작한 기념품 5종이다.

광산에 들어갈 때 광부들이 외쳤던 '살아서 돌아오라'는 의미의 엠블럼 'Glück Auf'와 광부, 광산 일러스트를 활용하여 디자인하였다. 파독 당시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썼던 편, 엽서 그리고 일기장에서 착안한 흑목연필, 엽서, 노트 그리고 스테디셀러인 마그넷 2종의 기념품이다. 일부 기념품의 문구는 독일마을에 거주하는 파독 근로자의 손글씨, 추천 문구를 활용했다



엽서+봉투 세트 판매가: 3,500 원



소형노트 판매가: 3,500 원



흑목연필지우개 세트 판매가: 2,500 원



마그넷 판매가: 13,500 원

독일마을 테마 기념품

남해독일마을을 테마로 제작한 기념품 9종이다.

독일마을 전경과 독일마을에 거주하는 파독 근로자의 추천 문구를 활용하여 디자인하였다. 파독 근로자가 사용했던 물건에서 착안한 노트와 엽서, 밴드, 페이퍼 인센스, 향초, 메탈 코스터, 해변이 많은 남해에서 사용하기 좋은 비치타올 2종, 스테디셀러인 마그네틱의 기념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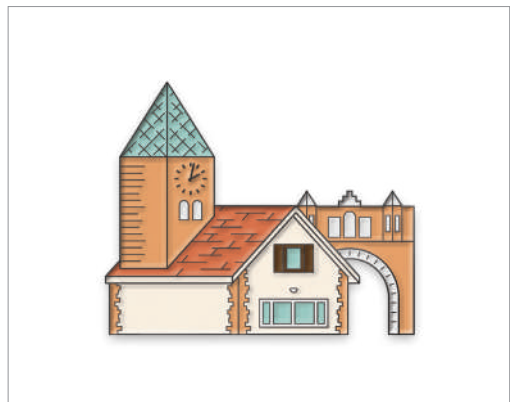
밴드 패키지 판매가: 5,000 원 ~ 6,000원



소형노트 판매가: 3,500 원



페이퍼 인센스 판매가: 20,000 원



마그네틱 판매가: 13,500 원

독일마을 테마 기념품

남해독일마을을 테마로 제작한 기념품 9종이다.

독일마을 전경과 독일마을에 거주하는 파독 근로자의 추천 문구를 활용하여 디자인하였다. 파독 근로자가 사용했던 물건에서 착안한 노트와 엽서, 밴드, 페이퍼 인센스, 향초, 메탈 코스터, 해변이 많은 남해에서 사용하기 좋은 비치타올 2종, 스테디셀러인 마그네틱의 기념품이다.



메탈 코스터 판매가: 6,000 원



캔들(3종) 판매가: 17,000 원



엽서+봉투 세트 판매가: 3,500 원



비치타올 2종 판매가: 19,000 원